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연구 - 90년대 후반 복식을 중심으로 -

김희균 · 전혜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Postmodernism Style of Fashion - Concentrating on the 1996-2000 -

Hee-Kyun Kim · Hei-Jung Chung

Dept. of Clothing & Textile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11. 4.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oncept of postmodernism and the characteristics concerning the stage of the development,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ostmodernism on the clothing. Postmodernism is the result of the late capitalism and its characteristics are the narrative, mixture and deconstruction. First, since it is impossible to express the social culture of various society through one theoretical disclosure, the novel value on the narrative is provided and its characteristics arise. Hence, the society becomes afford to accept the other and provides the novel value to the absolute sub-concept. Second, the recognition and emphasis of the narrative in the post modern society bring about the repulsion as to the strict classification between the high culture and low one established from modernism and the closure between each genre of the art, and this causes to raise the composed characteristics which borrow or mix the style and image of different age and culture. Third, the deconstructive feature arises which eliminates the boundary between the high and low class, the past and future and the destruction and construction. This means not only another recombination but also skeptical attitude about it.

Key words: Postmodernism, Narrative, Mixture, Deconstruction; 포스트모더니즘, 설화(屑話), 혼성(混成), 해체(解體)

I. 서 론

급속한 산업화와 기계문명 속에서 현대인의 경험을 표현하려 했던 모더니스트들이 추구한 유토피아가 허구로 비쳐짐에 따른 서구 사회의 변화-1) 근대의 과학·기술·정치적 기획과 연관된 메타 설화(meta narrative)에 대한 회의; 2) 합리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성과 문제들에 대한 각성의 고조; 3) 새로운 정보기술 혁신에 따른 고도 정보 사회화; 4) 새로운 사회운동들의 출현 등(이성원, 1997)-를 기술하기 위해 많

은 이론가들은 미디어 사회, 전시 사회, 소비자 사회, 소비 규제의 관료 사회, 포스트 산업사회 ……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사회가 포스트 모던(post modern)하다는 것이다(Madan Sarup, 1991).

복식은 시대 현실을 대변하는 문화집합체로 내적 세계를 표현하는 외적인 시각 조형물이다(James Lever, 1962). 이에 시대적 상황에 반응하는 복식(James Lever, 1969)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그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복식의 외적 형식에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래 패션 예측에 실질적인 활용가치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철학, 예술에 관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복식 전문가 2인이 외적 형태에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복식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을 고찰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세계 5대 패션쇼를 바탕으로 작품을 선정하여 수록한 「collection」紙를 선택하여 1990년대 후반(96S/S-99/00F/W)의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의식적인 예술가들이 그 나름대로 특정한 유파를 형성해 온 낭만주의, 리얼리즘, 모더니즘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단일한 예술 운동이 아니며, 일관성 있는 단일한 사상체계는 더더욱 아니다(김육동, 1991). Williams(김육동에서 재인용, 1962/1991)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스타일보다는 <감정의 구조>,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경험하는 한 방법으로써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Lyotard(Mardan Sarup에서 재인용, 1968/1991)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 대한 표현이라 하였다.

또한 Jameson(1983), Mandel(1978), Hassan(1982)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은 한 특정 스타일의 진술을 위한 단어가 아니라 문화 내의 새로운 형태적 모습들의 출현을 새로운 경제적 질서와 사회적 삶의 새로운 유형과 관련시키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시대화 개념(periodizing concept)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발전이 산업사회의 기계발달에 밟맞추어 이루어졌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산업 사회의 출현과 정보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의 보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틀에 박힌 모더니즘에 대항한 탈 모더니즘 운동이며 새로운 문화의 출현과 연관된 시대적인 산물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1) '설화(屑話)'적 특성

국어사전(1992)에서 설화(屑話)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뜻한다. 모든 형식의 사회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제시해 주는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담론으로는 포스트 모던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와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설화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Jameson(1983)은 세계가 이야기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설화 밖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달리 말해서 설화는 세계를 현상 또는 조명하는 동시에 은폐 혹은 왜곡한다고 주장하였고, Lyotard(Mardan Sarup에서 재인용, 1978/1991)는 모더니티의 메타설화가 그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메타설화의 정당성과 동의를 강요하는 능력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과 강조로 인하여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는 '억압된 것의 복귀'가 매우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무시되거나 도외시되어왔던 모든 것들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런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은 무엇보다도 소홀히 취급되어왔거나 거의 무시되어온 소수 민족의 부상에서 잘 나타난다.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하위문화의 대두 역시 소수 민족의 대두와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모더니즘 문화는 다분히 고급적이고 귀족적이며 엘리트적인 문화였다. 그것은 특정적으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일반 대중에 대하여 많은 혐오감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은 유럽중심의 강대국들과 소수의 지식인들과 애호가들을 중심적인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 이르러서는 Cramer의 말대로 드디어 '필리스티아사람들(속물들)의 복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권택영에서 재인용, 1963/1990). 즉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적 고급문화는 소수 민족의 문화와 하위문화의 성장으로 인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

2) '혼성(混成)'적 특성

국어사전(1992)에서 혼성(混成)은 '서로 혼합하여 이루어진 것, 또는 한데 섞어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의 설화에 대한 재인식과 강조는 모더니즘을 통해 수립된 고급문화와 저급 문화의 엄격한 구분, 예술의 각 장르간 폐쇄성에 대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는 다른 시대,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합시키는 혼성적 특성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ameson(1984)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가지 주요한 특성을 '혼성모방(pastiche)'과 '정신 분열증'이라고 주장하였고, Forster(1985)는 포스트모던 미술과 건축은 혼성모방의 사용으로 인해 특정한 문맥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까지도 박탈당한다. 수많은 상징물로 전락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은 부분적 환영(幻影)의 형태로 재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물화(物化)되고 과편화(fragmentation)되며 날조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혼성모방은 역사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를 가리켜 다름 아닌 '역사-대응물'이라고 하였다.

모더니즘의 경우 모든 장르는 마치 군대의 계급처럼 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 이르러서는 이런 장르 사이에 놓여 있던 높은 장벽이 무너지고 각각의 장르가 서로 혼합되고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Derrida는 안에도 밖에도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이성원에서 재인용 1985/1997) Gilman은 이런 현상을 '영역의 혼동'이라고 표현하였다(권택영에서 재인용, 1981/1990).

Blake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상상된 것이라고 주장(권택영에서 재인용, 1965/1990)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과거에 이미 사용되었던 소재를 재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를 아이러니적인 관점에서, 혹은 비판적인 안목에서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의 연속성보다는 역사의 불연속성을, 전통의 계승보다는 전통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3) '해체(解體)'적 특성

국어사전(1992)에서 해체(解體)는 '단순한 부정이나 파괴가 아니라 토대를 흔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숨겨져 있는 의미와 성질을 발견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다른 것과) 구별되고,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주를 역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독하는 활동을 뜻한다(이성원, 1997). 모더니즘은 자아와 주관성, 그리고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총체성과 통일된 주관을 거부한다. 이는 통일된 확고부동한 존재를 분리시키는 해체적 특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관하여 Leitch(1983)는 해체는 진리에 대하여 산종(散種)을,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과멸과 분열을, 완결된 원에 대하여 결정 불가능한 공간을 그리고 사려 깊음과 합리성에 대하여 유희와 히스테리를 찬양한다고 하였다. 또한 Nieche(1967)는 '주체'를 오직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우리가 에고이즘을 비난할 때 말하는 에고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해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론들이 절대적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포스트 모던한 사회의 특성을 설화(脣話), 혼성(混成), 해체(解體)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의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담론의 부재(不在)는 설화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로 인한 폐쇄성에 대한 반발은 다른 시대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합시키는 혼성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총체성과 통일된 주관을 거부하는 고급/저급, 과거/미래, 파괴/건설의 '상호 보족(補足)적' 의미의 해체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III. 90년대 후반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분석

1. 설화(脣話)적 디자인 요소

I) 하위 문화적 요소

산업화로 인한 획일화와 볼개성화에 대한 반발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 내에서의 메타설화의 부정, 즉 설화에 대한 재해석과 강조는 절대적 하위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하위계층의 문화 즉 히피, 평크 등의 특성이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등장하였다.

(1) 히피(Hippies)적 요소의 영향

히피(Hippies)는 기성사회나 기존의 법규나 관습에

반발하며, 몸치장·생활 따위에 무관심하며, 세상을 사랑이 지배한다고 믿는 일부 젊은층으로서 비동조자 집단이다(William Morris, 1976). 이들은 당시 단정함, 깨끗함, 부유함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 대한 반발로 가난과 더러움을 중시하고 불결하고 단정치 못한 외모를 하였으며(David Fred, 1992), 우아함과 질(質)보다는 스타일과 충격을 더 중요시하였다. 그 예로 구찌(Gucci)는 히피의 정체감을 표현하는 상징적 단서인 너털거리고 바랜 의상을 통해서 물질주의, 전쟁, 도시문명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였다(Fig. 1).

(2) 평크(Punk)적 요소의 영향

평크 록은 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노동자계층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앞날에 대한 절망감이나 정부에 대한 욕구불만을 복식으로 나타내려 했던 反모드 현상(엄소희, 1987)으로 복식은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기성의 미의식에 대한 부정이며 이상한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자 시도하는 기존의 패션 주류에 반대되는 것이다.

평크의 미적 감각은 단정치 못한 복잡 미묘함 속에 서 새로운 미를 창조하려는 의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프라다(Prada)는 평크의 공격적이고 위협적

인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폭력적 이미지의 액세서리를 고의적으로 코디사킴으로써 평크적 히스테리를 유머로써 표현하여 아이디어를 확대시켰다(Fig. 2).

2) 이국적 요소

모더니즘의 가치 판단으로는 사회와 문화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실해짐으로 인해 설화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는 자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재평가하려는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복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모더니즘의 엘리트 의식에 억눌려 그 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도외시 되어왔던 서양 이외의 제 3세계권 국가들의 다양한 종류의 민족풍(ethnic look)을 모티브로 한 복식이 나타났다. 살바트로 페레가모(Salvatore Ferragamo)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한 단순한 형태의 중국 노동복(Coolie Type)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장신구로 매듭단추를 디자인하여 동양풍의 특징인 장식성보다는 기능성을 강조하는 단순하고 편안한 형태를 표현하였다(Fig. 3).

장 폴 고띠에(Jean Paul Gaultier)는 서양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문양과 색채를 사용하여 이국적 취향을



Fig. 1.
Gucci, 99 S/S



Fig. 2.
Prada, 98/99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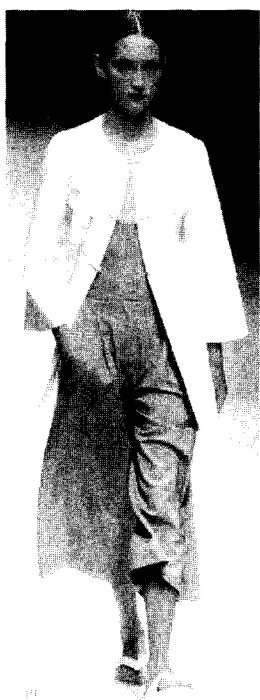


Fig. 3. Salvatore
Ferragamo, 99 S/S



Fig. 4. Jean Paul Gaultier,
96 S/S

강조하였다(Fig. 4). 그는 피상적인 이미지의 표출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양, 색채, 세부적 장식요소와 지역적 특성, 고유한 문물 등도 적극적인 창작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2. 혼성(混成)적 디자인 요소

1) 복고적 요소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물화(物化)되고 파편화된 '역사'는 덜 문제가 되었던 시대를 지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복식에서 주로 '복고풍(Retro Look)'으로써 표현되었다.

복식사전(1992)에 따르면, 복고풍은 바로 지난날 좋았던 그 무렵을 그리워하는 향수 패션(Nostalgic Fashion)과 동의어로 '스타일을 복고시킨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복고'는 그 방법상의 가치보다는 '이념 혹은 이상의 계승·회복'의 측면이 강하다. 복식에서 이는 주로 고전고대의 부활로 인위적인 과장이나 생략이 없는 자연스러운 인체미의 추구와 과거의 장식적인 요소를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로 타카시 오노(Takashi Ohno)는 19세기말에 유행한 버슬 스타일의

힙을 강조하기 위한 페티코트(petticoat)를 스커트의 디자인적 요소로 차용하였으며<Fig. 5>, 미유 미유(Miu Miu)는 엠파이어 스타일의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과거성'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Fig. 6).

2) 자연주의적 요소

포스트 모던한 사회의 역사적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은 역사적 정위(整位)능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는 물질문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초점을 맞출 수 없게 하였으며,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상태를 지향하는 사고방식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자연주의의 무드는 동식물의 자연 모티브의 문양과 자연물의 부착으로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핸드 메이드의 선호, 천연의 생지와 에크루(ecru)계열의 색 사용,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활용 등으로 자연의 순수성을 표현하는 간접적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렌스 스틸(Lawrence Steele)은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티브 중 깃털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인간의 바램을 표현하였고<Fig. 7>, 마틴 시트본(Martin Sitbon)은 동물 특구의 다이나믹한 패턴을 이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였다(Fig. 8).



Fig. 5.
Takashi Ohno, 99/00 A/W



Fig. 6.
Miu Miu, 99 A/W



Fig. 7.
Lawrence Steele, 99 S/S



Fig. 8.
Martin Sitbon, 98 A/W

3. 해체(解體)적 디자인 요소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희망감과 현실에 대한 비관주의는 통일된 확고부동한 존재를 분리시켰다. 이러한 시각은 성(性)에 대한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에 따라 일정한 형이 없이 남녀가 같은 의복을 착용하여, 남녀이분법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성을 초월한 하나의 새로운



Fig. 9.
Christian Dior,
98 S/S



Fig. 10.
Under Cover,
99/00 A/W

성을 추구하는 무성별성(asexuality)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남녀 복식의 아이템과 메이컵으로 남성은 여성적인 것을, 여성은 남성적인 것을 조화시켜 성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양성성(Bisexuality)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은 남성의 성적 특성을 차용한 남성 자켓과 여성의 성적 특성을 차용한 레이스 속옷과 스타킹의 조합을 통해 성적 이미지의 모호성을 표현하였으며 <Fig. 9>, 언더 커버(Under Cover)는 제 3의 성을 창조하여 여성과 남성을 재규정 하려 하였다(Fig. 10).

이상의 현대 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따른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90년대 후반 복식의 외적 형식에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의 보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틀에 박힌 모더니즘에 대항한 탈 모더니즘 운동이며, 새로운 문화의 출현과 연관된 시대적인 산물이다. 이는 설화(滑話), 혼성(混成), 해체(解體)적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복식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단, 각 디자인 요소에는 설화, 혼성, 해체의 3가지 특성 모두가 혼재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요소별 부각되는 특성에 준하여 분류·분석하였다.

<표 1> 현대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따른 디자인 요소

특징	주로 사용되는 어휘	디자인 요소	조작법
설화 (滑話)	단편화 우연성 임의성 다원성	하위문화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낡고 오래된 중고의상 레이어드룩 비정상적인 코디네이션 지퍼, 체인, 금속장식 등의 악세사리 사용
		이국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적이고 비구축적인 형 자유로운 착장방식 소재의 문양이나 재질의 다양성
혼성 (混成)	불역사성 비정치성 비종결성 패스티쉬	복고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스러운 인체미의 추구 과거 이미지의 차용(장식적 요소의 차용)
		자연주의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동식물) 모티브의 문양 자연물의 부착과 악세사리 착용 핸드 메이드 선호 천연의 생지와 에크루 계열의 색 사용
해체 (解體)	모호성 불확정성 확장불가능성 아이러니	해체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성별성-디자인의 발달에서부터 성의 구별이 없음 양성성-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의 믹스

첫째,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담론으로는 포스트 모던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경험과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화(滑話)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는 ‘다른 타인(other)’에 대해 너그러워졌고 절대적 하위개념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복식에서 하위문화적 요소-60년대의 히피(Hippies)와 70년대의 폭크(Punks)적 요소-의 반영과 소수민족의 이국적 요소-오리엔탈리즘과 그 외 소수민족의 민속풍-의 도입으로 표현되었다. 전자는 낡고 오래된 중고 의상, 레이어드룩 등의 히피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폭크들의 비정상적인 코디네이션과 지퍼, 체인, 징 등의 악세사리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후자는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평면적이고 비구축적인 형, 자유로운 착장방식과 소재의 문양이나 재질의 다양성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의 설화에 대한 재인식과 강조는 모더니즘을 통해 수립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엄격한 구분, 예술의 각 장르간 패쇄성에 대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합시키는 혼성(混成)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물화(物化)되고 과편화된 역사성은 복고적 요소-고대의 부활로 인위적인 과장이나 생략이 없는 자연스러운 인체미 추구와 과거의 장식적 요소의 차용-와 자연주의적 요소-자연물의 문양 또는 부착과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활용-로 나타났다.

셋째, 총체성과 통일된 주관을 거부하여 고급/저급, 과거/미래, 파괴/건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보족(補足)적’ 의미의 해체(解體)적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또 다른 재구성의 추구에서 비롯되는 가능성의 기대와 현실에 대한 비관주의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복식에서 성별에 대한 구분 자체를 해체하는 무성별성(aseuality)과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를 유머러스하게 믹스시켜 성별에 따른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양성성(Bisexuality)으로 표현되었다.

참고문헌

- 권택영. (1990).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그랜드 국어사전. (1992). 금성출판사.
- 김육동.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 복식사전. (1992). 라사라 교육개발원.
- 엄소희. (1987).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원. (1997). 테리다 읽기. 문학과 지성사.
- 이정후. (1998).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Daniel Bell. (1978).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 Davis Fred.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iedrich Nietzsche. (1967). *The will to power*, ed. walter kaufmann, trans. Walter Kaufmann and R. J. Hollingdale. New York: Random House.
- Hal Foster. (1985). (*Post) Modern polemics, in recordings: art, spectacle, cultural politics*. Post Townsend: Bay Press.
- Ihab Hassan. (1982). *Culture, indeterminacy, and immanence: Margins of the (Postmodern) Age, in the postmodern turn*.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 James Laver. (1962). *Fashion make social history*. New York: The Brooklyn Museum.
- James Laver. (1969). *Costom & Fashion*. Thames and Hudson.
- Jameson, F.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London: Methuen.
- Jameson, F. (1983).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Washington: Bay Press.
- Jameson, F. (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 Leitch, V. (1983). *Deconstructive Criticism, An advanced introduction*. London: Hutchinson Collection. (1996 S/S-2000 A/W).
- Lyotard, J.-F.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andel, E. (1978). *Late Capitalism*. London: Verso.
- Mardon Sarup. (1988). 입현규 옮김 (1991). *인간사랑*.